

## 여성의 성별 사회정체성과 남녀간 경쟁전략의 관계

김금미·한덕웅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Tajfel(1978, 1981)이 제안한 사회정체성이론에 근거를 두고 여성이 남성과 집합적으로 경쟁하려는 전략을 선호하는 행동이 사회정체성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여성의 성별 사회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253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서 여성범주동일성, 집단자존심 및 부정적 정체성의 세 요인들로 구성되는 척도를 제작하였다. 이 세 요인들로 구성되는 여성의 성별 사회정체성 척도를 198명의 다른 여대생에게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한 결과도 만족할만한 부합도 지수를 보였다. 한편 여성들이 긍정적 정체성을 획득하려는 집합적 전략들로 남성과 집합적으로 경쟁하거나 남녀비교의식 전략 사용을 측정하는 도구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사회정체성과 집합적 경쟁전략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이 집합적으로 남성과 경쟁하려는 전략과 남성과 비교하려는 두 전략의 선택을 모두 설명하는 사회정체성 요인은 부정적 정체성이었다. 그리고 여성범주동일성요인은 집합적 경쟁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의하게 기여하였다. 전체적으로 세 구성요소들에서 산출된 여성 사회정체성은 여성이 남성과 집합적으로 경쟁하는 전략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당면한 사회구조적 변인들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정체성이론에서 제안된 이 변인들을 장래 연구에서 다룰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여성 사회정체성, 집합적 경쟁전략, 사회정체성이론, 정체성 관리 전략

성별은 인간을 양분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여성 혹은 남성으로 분류되면 문화에 따라서 각 범

주별로 지니는 일정한 고정관념과 연결된다. 더욱이 여러 사회에서 성별은 세력 및 지위의 차별과 관련되어서 남성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기득권을 지닌 집단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최근 성별 관계를 지위관계나 세력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집

단간의 관계로 파악하는 연구들도 많다. 성별 관계도 마치 인종집단간 관계에서 보는 바와 유사하게 집단간 관계의 차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Aschmore & Del Boca, 1986; Hogg & Abrams, 1988).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여성문제를 연구할 때 집단간 관계의 관점을 취한 연구가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집단간 관계의 관점에서 여성의 집합적 경쟁 행동이 사회정체성에 의해서 잘 설명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여성이 개인이나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성역할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김득란, 1992; 김영희, 1994; 임용자, 1994; 정진경, 1990). 이 방면의 연구들을 자극한 Bem의 BSRI(1974, Bem Sex Role Inventory)는 분석 수준에서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경험되는 여성성, 남성성 혹은 양성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이 대인관계 수준의 경험을 토대로 개인적 수준의 관점을 취하게 되면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집합적 현상은 다루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이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집합적으로 행동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이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으로 정체화하는 개인정체성과 구별하기 위하여 집단이라는 사회적 범주로 자기를 동일시하는 경우를 사회정체성이라고 보았다.

사회정체성이론은 집단간 관계를 다루는 일반 이론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이 이론이 성별관계를 다루는데 유용하다고 제안하고 있다(Jackson, Sullivan, Hamish & Hodge, 1996; Lindman & Sundvik, 1995). Tajfel 이후 여러 연구에서 사회정체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도 제안되었는데, 예를 들면 집

단간 비교 상황의 특출성, 집단간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지위의 차이, 집단간 상대적 지위의 안정성, 합법성 및 집단간 경계의 침투가능성 등 이른바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한덕웅, 2001 인쇄 중). 한편, Ellemers(1993)는 정적 정체성의 획득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선행변인들로서 집단 경계의 침투가능성, 집단의 지위, 대안적 집단 멤버쉽, 안정성, 합법성 등을 지적하였고, 이 변인들간의 관계를 실증연구를 통해서 검증하였다(Ellemers, Van Knippenberg, & Wilke, 1990; Ellemers, Wilke & Van Knippenberg, 1993 등).

이러한 변인들은 성별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남녀간의 지위 차이, 지위의 안정성, 합법성, 특출성 등의 사회구조적 변인들의 지각에 따라서 성별 사회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사회정체성 수준에 따라서 사회정체성을 정적인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한 심리적, 행동적 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모형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성별 사회정체성이 집합적 경쟁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특히 남녀 범주화에 따른 사회정체성의 효과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shmore와 Del Boca(1986)는 남녀를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집단간 관계에서 행동하는 집단 성원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연구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관계에 대해서 집단간 접근을 도입한 실증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정체성을 다루게 되면 집단간 관계의 관점에서 여성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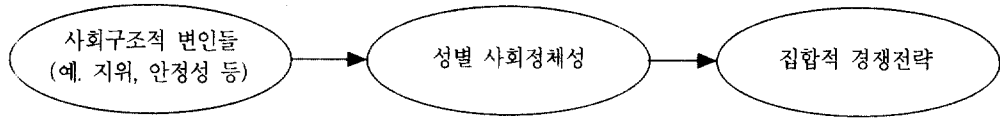


그림 1. 사회구조적 변인들과 성별 사회정체성 및 집합적 경쟁전략의 관계

둘째, Cole과 Bourhis(1988; 1994, Bourhis, 1994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사회와 대학 상황에서 집단으로서 남녀간에 존재하는 지위와 세력 차이의 안정성과 합법성에 관한 신념을 살펴본 바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남녀 대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성별 집단에 강하게 정체화되었고, 자신이 속한 성별 집단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또한 사회정체성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행복감을 느꼈다. 한국 여성과 남성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다수 축적되고 있는데, 이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얻게될 결과들을 다각도로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Hartstone과 Augoustinos(1995)는 대부분의 최소집단실험이 피험자를 두 집단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의 개별적 차원으로 범주화하는 교차범주화 방법을 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독립적인 세 개 집단을 사용하여 최소집단 패러다임을 검증했는데 두 집단을 쓴 경우와 비교할 때 내집단 편애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분 범주로 분류할 때 내집단 편애가 생기고 경쟁지향성을 촉발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실제 생활에서 이분되는 범주만 존재하는 경우와 셋 이상의 범주 중 한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 사회정체성의 효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집단간 연구의 틀에서 볼 때 집단간 편향에 미치는 사회정체성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는 우선 실제 생활에서 이분범주인 남녀범주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사회정체성과 집합적 경쟁 전략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여성 사회정체성 척도와 집합적 경쟁전략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이 양자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 성별 사회정체성의 개념화

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집합적 경쟁전략에 선행하는 개념으로 사회정체성을 다루려면 사회정체성의 개념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정체성의 개념은 Tajfel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도입된 이래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개념적·조작적 불일치가 상당히 남아있다(Jackson & Smith, 1999). 그러므로 사회정체성이론의 기본 과제들 가운데 하나가 사회범주화를 통해서 경험된다고 가정하는 사회정체성의 개념적 속성 및 측정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한덕웅, 2001 인쇄중). 이 문제와 관련하여 Moscovici와 Paicheloer(1978, 252쪽)는 이미 Tajfel이 이 개념을 모호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다(한덕웅, 2001 인쇄중). 사회정체성에 관련된 가설들이 일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회정체성 개념의 불일치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Brown과 그의 동료들(Oaker & Brown, 1986)

은 사회정체성이론의 틀에 맞춰 내집단 정체와 집단간 차별화의 정적관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즉, 집단간 차이를 더 크게 하여 사회비교를 통해 정체성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정적 차별화의 욕구인 정체-차별화 가설(identification-differentiation hypothesis)(Oaker & Brown, 1986, 768쪽)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고 때로는 사회정체성이론의 기본 틀과 상치되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Hinkle, Taylor, Fox-Cardamme & Crook, 1989; Karasawa, 1991). 즉, Brown 등(1986)의 척도는 일반적으로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 비판과 일치되게 한편에서는 사회정체성이 중다차원의 구성체제라는 다차원적 개념이 강조되었다(Hinkle et al., 1989). Tajfel(1978, 63쪽)은 사회정체성을 '집단의 멤버십에 대한 지식과 그 멤버십의 가치 및 정서적 중요성에서 나오는 개인적 자기개념의 일부'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 Hinkle 등(1989)은 인지적 측면(지식), 평가적 측면(가치), 정서적 측면(정서)으로 나누어 해석하지만, Karasawa(1991)는 Tajfel이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지적했다고 보았다.

다른 연구들(Turner, 1982; Karasawa, 1991 참조)에서는 인종, 국가 같은 집단 범주의 명칭에 대한 정체라고 볼 수 있는 집단 수준의 정체와 다른 내집단 성원에 대한 대인간 애착에서 영향 받는 대인 수준의 정체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소집단 상황에서 내집단 편애는 내집단 성원간의 직접적 상호작용이 없이도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정체성이론에 충실하게 볼 때 대인 수준의 정체는 집단간 행동이나 집단내 행동보다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Karasawa, 1991).

집단정체성 구분과 그것이 내집단 평가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Karasawa(1991)는 정체성을 집단 멤버십에 대한 정체성과 다른 집단의 성원에 대한 정체성으로 나누었다. 그는 6(연구 1)~7(연구 2)개의 문항을 사용한 두 연구를 통한 요인분석 결과에서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구분되지 않았고, 그 대신 집단수준의 정체와 대인수준의 정치는 뚜렷이 구분되었으며, 각각 전체변량의 38.2%(연구1)~35.8%(연구2), 17.3%(연구1)~18.3%(연구2)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 쓰인 문항은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정체성 정도를 묻는 매우 구체적 문항(예, 학교 이름이 적힌 옷 입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른 집단들의 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Mummendey 등의 연구들(1996, 1999ab)에서는 사회정체성을 매개변인으로 다루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Tajfel의 인지적, 평가적, 정서적 요소에 Luhtanen과 Crocker(1992)의 정체성 하위 척도를 참조하고 자기개념에 대한 멤버십의 관련성 측면을 첨가하여 이론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4개 정체성 측면을 포괄한 16개의 문항을 측정하였다. 이를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하여 세 개의 요인으로 요약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자기-개념과의 관련성, 두 번째 요인은 소속의 명확성, 세 번째 요인은 정서-반응적 친화였으며, 각 요인들에는 3개 문항들이 각각 포함되었다. 이 중 세 번째 요인은 Tajfel의 정서적 요소에 합치되지만, 다른 두 요인은 인지적 요소와 평가적 요소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Mummendey 등의 연구에서 참조한 Luhtanen과 Crocker(1992)의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이론의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이 자신의 공동체 소속감에 관련된 자기개념의 측면을 나타내는

면에서 미국의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집합적 정체성은 사회 집단에서 소속감에 관련된 정체성 측면이고, 집합적 자존심은 자신이 사회집단에 두는 가치라고 정의하였다(Luhtanen & Crocker, 1992). 또한 이들은 개인마다 개인적인 정체성과 사회적인 정체성이 있으므로(Tajfel, 1982), 개인의 자아자존심뿐만 아니라 집합적 자아자존심 또한 측정되어야 하며 별개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집합적 자존심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집합적 자존심(collective self-esteem) 척도는 성,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계급과 같이 집단에 대한 소속감에 근거한 사회 정체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이들이 개인에 의해 획득되기보다 생득적으로 소유하는 집단 소속감에 초점을 두는 여러 이유들 중의 하나로 생득적인 집단 소속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체성을 나타내지만 획득된 집단 소속감은 더 개인 특유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Luhtanen & Crocker, 1992). 또한 획득된 집단에 대한 정체성은 노력이나 성취로 귀인되기 때문에 획득된 집단에 초점을 두면 개인 정체성과 혼입될 수 있다고 보았다(Luhtanen & Crocker, 1992). 이들은 포괄적이고 비교적 안정된 개인적 자존심 척도와 대응되는 집합적 자존심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집합적 자존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들은 사회집단의 성원으로서 얼마나 좋거나 가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개인적 판단(소속감), 사회집단이 개인에 대해 지니는 정서적 중요성에 대한 자기의 평가(사적 집합적 자존심),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자신의 판단(공적 집합적 자존

심), 그리고 사회 집단에 관한 자신의 소속감이 자기개념에서 중요한 정도(정체성)를 평가하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세 연구를 통해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이들이 제작한 척도는 비교적 만족스러웠고, 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이 집합적 자존심 수준이 정체성 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논의했다. 국내에서도 이 척도를 번안하여 타당화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고, 그 연구 결과 Crocker와 Luhtanen(1992)의 문항에 비교할 때 2문항이 삭제되었으나 비교적 신뢰로운 결과를 얻었다(김혜숙, 1997).

반면 Hinkle 등(1989)은 의사결정하는 소집단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평가하도록 하여, 집단간 정체성의 구조를 알아보았다. 정체성의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 개인/집단 상호의존적 측면이 전체 변량의 70.5%를 설명하는 결과를 얻어서 집단간 정체성이 이 세 요인들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 중 개인/집단 상호작용적 측면은 '집단에 있으면 편치 않다' 같은 개인욕구와 집단 욕구가 상충되는 면을 다룬다. 이 연구의 특이한 결과는 정서적 정체만이 집단간 차별 점수와 상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Turner(1984; 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가 집단 정체성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점과 대조되므로 중요하다.

Bond와 Hewstone(1988)은 사회정체성이론이 서구 문화에서 주로 검증된 점과 이러한 한계로 인해 비서구 문화에서는 집단간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홍콩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국의 홍콩 반환 시점을 전후하여 그들이 지니게 되는 사회정체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질문지 I부분에서 사회정체성척도를 사회정체성이론에 기초하여

사회정체, 사회비교, 대인간/집단간 연속성 및 사회적 지위의 네 범주로 사전에 구성하였고, 이를 정체 변화를 측정하는 II부분과, 홍콩에서 두 집단간(영국계, 중국계)의 조화에 대한 중요성 지각을 측정하는 III부분과 함께 구성하여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집단 정체, 집단간 분화, 변화에의 저항 및 현 상황에 대한 만족의 4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쓰인 문항들에는 상황 특수적인 종속변인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요인분석에서 상황 특수적인 문항까지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사회정체성의 구성요인이기보다는 사회정체성의 결과 요인으로 보여지는 '현 상황에 대한 만족' 요인이나 '변화에의 저항' 요인이 포함되었다.

Ellemers 등(1999)은 내집단 지위와 집단 크기 및 집단 형성(자기 선택/할당)의 세 변인을 조작한 실험 연구에서 사회정체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집단 소속에 대한 평가 결과로 볼 수 있는 집단 자존심, 집단에 자기를 포함하거나 자신을 집단 구성원으로 정의하는 자기범주화, 그리고 집단의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싶은 욕구와 관련된 집단몰입의 세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이 요인들은 전체 변량의 65%를 설명하였다. 이 세 요인은 각각 Tajfel의 평가적(집단 자존심), 인지적(자기 범주화), 정서적(집단 몰입) 구분과 일관된다. 이들은 평가적·인지적 요인이 아닌 정서적 요인이 내집단 편애의 선행요인이라고 가정했다. 매개분석을 위해 내외집단 평가의 차이점수와 집단별로 할당된 점수를 각각 사용하여 변량분석을 했을 때 사회정체성의 세 요인 중 집단몰입을 넣었을 때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자기범주화이론이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데 비해 사회정체성이론이 더 설득력이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Jackson과 Smith(1999)의 연구들(연구 1, 2)에서는 사회정체성의 개념화가 불일치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정체성을 측정한 연구의 문항들을 동시에 모두 사용하여 사회정체성을 새로운 틀로 개념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집단간 맥락 지각, 내집단 매력, 상호의존성 신념, 탈개인화의 네 차원에 따라 불안정한 사회정체성이나 안전한 사회정체성을 느끼게 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내집단 편애, 외집단 차별의 집단간 편향이 달라지리라고 논의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네 개의 차원과 두 유형의 사회정체성 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또한 기존에 사용된 다양한 사회정체성 척도들을 사용하여 척도별 측정치들로부터 요인을 추출했기 때문에 각 척도에서 사용된 문항들이 속하는 차원은 무시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한덕웅, 2001 인쇄 중).

한편, 성별에 관련한 사회정체성을 측정할 때도 보편적인 사회정체성 문항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사회정체성을 측정한 연구도 있다. 더 나아가 성별 관련 정체성을 중다차원으로 가정한 연구도 있다. Gurin과 Townsend(1986)는 다른 여성과의 유사성 지각, 공동운명의 지각(즉, 여성은 그들의 집단멤버십에 근거하여 비슷하게 대우받는다는 신념), 그리고 인지적 중심성(집단 소속감을 자신의 중심에 두는 것)의 세 요인으로 나누었다. 이 중 인지적 중심성은 조작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자신이 여자라는 데 대해 생각하면서 보낸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이 요인은 Turner가 중요시하는 특출성 요인과 유사한 점이 있고, 정체성 관리 전략으로 볼 때는 '개인화' 전략에 상응한다.

또한 Cameron과 Lalonde(2001)는 Gurin과

표 1. 선행 연구들의 사회정체성 요인분석 결과

Tajfel (1978)	지식 (knowledge)	정서 (emotion)	가치 (value)
Ellemers등 (1999)	자기범주화 (인지적 인식)	정서적 몰입 (정서적 관여감)	집단 자존심 (멤버십에 관련된 정부 가치)
Mummendey등 (1996 등)	자기개념과의 관련성	정서적	소속감을 명확히하기
Hinkle 등 (1989)	인지적	정서적	개인/집단 상호의존적 측면
Cameron & Lalonde(2001) 여성정체성	인지적중심성/ 내집단연대감	내집단 정서	

Markus(1989)가 주장하는 집단에의 연대감, 다른 집단 성원과의 유사성 지각, 집단 소속과의 정서적 연합, 그리고 성별의 인지적 중심성을 반영하는 문항들에 Brown등(1986)의 사회정체성 척도의 두 문항 및 Luhtanen과 Crocker(1992)의 집합적 자존심의 정체성 요인과 자기 정의에 집단 소속감이 중요한 정도에 관련된 요인의 두 하위척도를 덧붙여서 총 28문항으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내집단 연대감(유사성과 연대감 지각), 인지적 중심성, 내집단 정서, 자기 정의에서 중요성 요인들로 나뉘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을 별도로 요인분석해 본 결과에서는 중요성 요인에서 여성의 경우 충분한 신뢰도계수가 얻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후속 분석에서 이 하위 척도는 고려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신뢰도계수 .62에서 .83을 지니는 내집단 연대감, 인지적 중심성, 그리고 내집단 정서의 세 차원을 얻었다. 지금까지 기

술한 선행 연구들의 요인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 정리된 정체성의 각 요인들은 개념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파악되므로 이 요인들이 단일 차원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크게 인지적 요인, 평가적 요인,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되며 연구에 따라 각 요인들이 더 세분되거나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jfel(1979)과 Ellemers(1999)의 틀과 유사하게 3개의 요인이 도출되리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사회정체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추출하여 요인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Bond와 Hewstone(1988)의 연구와 Karasawa(1991)의 연구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

이,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정체성과 종속변인인 집합적 경쟁 전략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즉 사회정체성 자체를 측정하기보다는 사회정체성을 지닌 결과로 나타나는 경쟁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에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지니므로 요인분석을 하면 한 요인으로 묶일 수는 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지니게 되는 인지·평가·정서적 사회정체성과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집합적 행동을 분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가 혼재된 문항을 사용하면 두 변인들의 관계를 명확히 해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여성의 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들과 집합적 경쟁 전략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서로 다른 요인으로 분리되는지 알아본다.

또한 이러한 여성 사회정체성의 요인들은 정진경(1999)이 제작한 한국의 공동체의식검사와 차별적인 상관이 있으리라고 예측된다. 한국 공동체의식검사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공동체적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작한 척도였다. 이 검사는 친밀성과 소속감, 조화와 단결, 자발적 참여 및 의사 표현, 동일시와 공과의 공유, 자율성과 공공의식, 그리고 권위적·배타적 집단주의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요인간 상관을 볼 때 자신의 내집단에 대한 인식, 범주화, 동일시 혹은 소속감 등을 나타내는 여성 사회정체성의 인지적 요인이 한국 공동체의식의 각 요인들과 상관이 비교적 높으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이 요인들 가운데 문항의 내용으로 볼 때 여성 사회정체성과는 직접 상관이 없으므로 오히려 사회정체성의 결과라고 예상되는 문항들을 포함한 요인

들이 있다. ‘그 집단에서 갖는 모임은 꼭 참석한다’나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할 때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한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발적 참여 및 의사표현’ 요인과 ‘우리의 공공 기물을 내 것처럼 소중히 다룬다’와 ‘그 집단의 규율을 남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 지킨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율성과 공공의식’ 요인이다. 그러므로 사회정체성에 의해서 초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자발적 참여 및 의사표현’ 요인과 ‘자율성과 공공의식’ 요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친밀성과 소속감, 조화와 단결, 동일시와 공과의 공유, 그리고 권위적·배타적 집단주의의 요인은 여성의 사회정체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집합적 전략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 자기개념은 개인정체성과 집단정체성으로 나뉘어지고, 집단멤버십이 자기개념과 자존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개인은 내집단 성원을 편애하고 외집단 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회비교를 통해서 정적 사회정체성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개인이 이미 낮은 지위에 처해 있는 상황처럼 현재 사회정체성이 부정적이면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 사회적 경쟁(social competition), 사회적 창조(social creativity) 전략을 사용한다(Hogg & Abrams, 1998). Jackson 등(1996)은 이 분류와 달리 사회적 이동과 사회적 창조 전략, 그리고 두집단의 상대적 지위를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외집단과 직접 경쟁하는 사회적 변화(social change) 전략을 부적으로 독특해진 내집단 구성원이 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전략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세 전략들로 구분하는



관점에서 이 전략들 각각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Tajfel은 초기에 낮은 지위의 집단이나 소수 집단에 속하게 되면 내집단으로부터의 이동이 지지되는 분위기일 때는 사회적 이동을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음의 3가지 전략을 사용한다고 제안했다(Tajfel, 1978, 93~94쪽). 첫째, '사회적 경쟁'으로 집단 특성을 재해석하거나 행동하여 내집단이 우월한 집단이 되도록 만들고자 한다. 둘째, 현재 집단의 열등한 특성을 재해석하여 열등하게 보지 않고 우월한 집단으로부터 정적으로 가치있는 독특성을 획득한다. 셋째, 사회적 행동과 새로운 '이데올로기' 분화를 통해 우월한 집단에서 정적으로 가치있는 독특성을 지닌 새로운 집단 특성을 창조한다. 이후에 네 번째 가능성을 부가했다. 내집단이 비교되는 외집단을 선택하거나 변경하여 정적 독특성을 추구한다. 이 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전략들이 '사회적 창조' 측면의 전략들이다. 이 전략들 중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신념에 달려 있는데, 현재 상황이 합법적이면 개인적으로 성취를 이루려는 사회적 이동을 피할 것이지만, 비합법적이거나 불안정하면 집합적으로 도전하는 사회적 경쟁을 시도할 것이다(Ellemers, 1993).

한편 개인이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의 경쟁에서 패했을 때 개인이 그 집단에 대해 지니는 집단정체성의 수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심리적이거나 행동적 전략이 선택될 수 있다. 이 때 집단 정체성 수준이 낮으면 자기향상을 위해 집단간 사회비교 같은 집단간 책략보다는 대인간 관계에서 자기평가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Jetten et al., 2000; Karasawa, 1991; Mummendey, Mielke, Wenzel, & Kanning, 1996). 또한 사람들이 집단

에 정체화하고 내집단 멤버십을 인식하게 되면 개인보다는 집단 구성원으로서 정적 자기평가를 추구하리라고 예상된다(Karasawa, 1991). 사회정체성이론에서 주장하는 정체성 관리전략들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경쟁 전략의 특성은 현 사회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평과 일관되므로 특히 여성의 현재 성 관련 태도와 행동을 분석하는데 사회정체성이론이 유용한 틀로 쓰일 수 있다(Cameron & Lalonde, 2001).

실제로 부적 정체성을 지니는 상황에서 정체성의 관리 전략을 알아본 연구들이 있었다. Lalonde와 Silverman(1994)은 침투가능성과 특출성에 따라서 상황 도피(exit), 상황 수용, 재검사 요구, 집단적 항의 가운데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 알아보았다. Jackson 등(1996)의 연구에서는 집단 경계의 침투가능성에 따라서 부적으로 독특한 내집단에서 사회적 이동과 사회적 창조 전략이 사용되는 현상을 검증하였다. Ellemers 등(1997)은 정체성의 위협에 따른 개인적 이동의 욕망을 알아보았다.

Blanz 등(1998)은 사회정체성이론에서 낮은 지위 집단 성원이 정적 사회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체성 관리전략(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으로 제안하는 10개의 전략들에 사회비교 이론으로부터의 2개의 전략을 추가하여 12개의 전략을 선정하여 정체성 관리전략의 이론적 체계화를 제안하고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개인/집합적 전략과 행동/인지적 전략에 따라 두 개의 축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개인적 행동적 전략으로 낮은 지위 집단 성원이 개인적으로 외집단에 소속하려는 전략인 개인적 이동(individual mobility) 전략은 개인/행동적 전략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 낮은 지위 집

단이 높은 지위 외집단에 더 유사해지려는 전략을 동화(assimilation)라고 한다. Hogg와 Abrams (1988)는 이러한 전략이 전체 내집단이 없어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서 개인적 반응으로 보았지만, 초기에 Tajfel은 이를 전체적 내집단의 평가를 향상시키려한다고 보고 집합적 반응으로 간주했다. 개인/인지적 전략의 대표적인 전략이 개인화(individualization)이다. 이 전략은 자신을 더 이상 부적 정체성 집단의 성원으로 정의하지 않고, 집단 평가에서 영향받지 않는 독특한 개인으로 정의하는 전략이다. 즉 자신을 개인 범주화할 때를 말한다(한덕웅, 2001 인쇄 중).

집합/행동적 전략 중 사회적 경쟁은 자기 평가의 동기에 의해서 내집단을 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비교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행동을 말하고, 현실적 경쟁은 자기 이해와 집단 목표가 외집단과 갈등을 일으킬 때 내집단에 이롭도록 자원을 할당하려는 목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다. 마지막으로 집합/인지적 전략은 Tajfel이 사회적 창조 전략으로 구분한 전략들과 사회비교이론에 따르는 두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비교 차원의 재평가, 새로운 비교 차원의 창출, 상위 재범주화 전략, 하위 재범주화 전략, 비교 대상의 변화 전략, 시간적 비교 전략 및 기준과의 비교 전략이다.

이러한 두 축을 기준으로 한 네 차원에 위치되는 12개의 전략을 요인분석하여 5개의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2(행동/인지)×3(내외집단 무변화/내집단 무변화·외집단 변화/내외집단 변화)의 행렬에 위치한다고 해석하였다. 내외집단이 둘 다 변하지 않는 행동적 전략에는 지위 관계가 변화하는 사회적 경쟁과 현실적 경쟁이 해당되고, 내외집단이 둘 다 변하지 않는 인지적 전략에는 비

교차원이 변화하는 비교차원의 재평가와 새로운 비교 차원의 도입이 해당되었다. 또 내집단이 변하지 않지만 외집단이 변화하는 인지적 전략은 비교대상에 대한 인지적 변화를 피하는 새로운 비교집단, 시간적 비교, 기준과의 비교가 해당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략들 중 실제 남녀간 범주화라는 점에 착안해 여성을 대상으로 실제적 경쟁 및 사회적 경쟁 전략을 다룬다. 즉 여성이 남녀간 지위 관계의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내집단에 이로운 방향으로 집합적으로 실제로 자원을 할당하려는 의도를 지니거나, 혹은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심리적 사회비교가 이루어지는 정도를 알아본다. 이 전략들이 선행 연구에서는 '집합/행동적 변화'나 '행동/내외집단 무변화'의 축에 해당되었으나 성격상 사회적 경쟁은 인지적인 전략의 측면이 있으므로 먼저 실제적 경쟁과 사회적 경쟁 전략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한다.

### 여성의 사회정체성과 경쟁 전략 선호의 관계

여성 사회정체성의 여러 차원들이 내집단 편애, 고정관념 및 편견과 차별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Ellemers 등(1999)의 연구에서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혹은 '정직한-정직하지 않은' 같은 형용사에 1~7점의 점수를 할당하거나, 혹은 0~100점의 점수를 할당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평가와 결과의 차별화를 종속측정치로 사용하여 내집단 편애와 집단정체성의 관계를 알아본 바 있다. 그 결과, 두 가지 차별화 모두와 상관을 보인 요인은 Tajfel의 '정서' 차원에 해당하는 '집단몰입' 차원이었다. '평가' 차원에 해당하는 '집단자존심'은 결

과 차별화와 상관되었지만, 자기범주화는 어떤 차별화 점수와도 상관되지 않았다.

본 연구와 연결지어 볼 때 여성의 사회정체성 차원을 구별하고 내집단 편애 및 외집단 차별화와 더 관련되는 사회정체성 요인을 찾아내는 과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정체성의 어느 측면이 실제로 남녀간 비교의식이나 집합적 행동과 관련되는지 알아내면 단순히 사회정체성만으로 여성의 행동을 추측하는 데 비해서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집단의 지위와 내집단 편애의 관계가 비일관되었는데, 낮은 지위가 집단 자존심을 위협할 때 내집단 편애를 보이는지, 즉 위협에 집단 수준의 반응을 보이는지는 개인이 집단에 정서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Ellemers et al., 1999). 그러므로 여성의 사회정체성 요인들 중에서도 정서적 요인들이 집합적 경쟁전략과 더 관련되리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사회정체성의 각 차원에 따라서 집단간 태도나 행동을 달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문항을 선별하고 사회정체성의 각 차원을 확인하여 신뢰롭고 타당한 사회정체성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가 중요하다. 특히 정서적 요인(Tajfel, 1978)과 편견의 상관은 이론의 측면에서 자기범주화이론에 비하여 사회정체성이론의 우월성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주목된다.

따라서 먼저 기존의 사회정체성 척도들에서 구성요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여성의 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여성의 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데 알맞도록 수정하고 보완하여 여성의 사회정체성 요인을 확정한다. 이어서 여성 사회정체

성의 각 요인들이 정체성 관리 전략들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방 법

### 조사의 참여자

본 조사는 서울(160명), 경상도(119명), 전라도(51명), 충청도(41명), 강원도(40명)에 소재하는 여자 대학생 4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자료 가운데 문항의 탐색에 더 초점을 두어 자료를 무선적으로 3 : 2로 나누었다. 여성 사회정체성 요인의 탐색을 위해서 여자 대학생 253명(서울: 96명, 경상도: 72명, 전라도: 32명, 충청도: 27명, 강원도: 26명)의 응답 중 각 문항에 하나 이상의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24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나머지 198명의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 질문지의 구성 및 문항의 선정

먼저 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한 외국 연구들에 포함되었던 문항들을 수집하여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사전 예비문항을 구성하는데 있어 영문은 한국말로 번역하고 의미가 거의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상황 특수적인 경우나 문항의 뜻이 모호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많은 문항을 수집(약 200문항)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해 집단심리를 전공한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3인이 사회정체성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정도를 5점 척도(1:전혀 적합하지 않다 ~ 3:보통이다 ~ 5:매우 적합하다)에 표시하여 평균 3점 이상의 점수

를 획득한 총 47문항을 예비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나는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로 인해 삶의 의미를 더 느끼게 된다' '나는 내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에 화가 난다' '나는 남성들보다 여성들과 계속 함께 활동하고 싶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 가운데 36문항은 긍정적 문항이었고, 11문항은 부정적 문항이었다. 문항들은 무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자신의 성별에 대하여 느끼거나 행동하는 바'를 7점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 '3: 보통' ~ '6: 매우 그렇다'까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 사회정체성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는 한국 공동체의식검사(정진경, 1999)를 실시하였다. 한국 공동체의식 검사는 개인이 소속하고 있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보는 검사이고, 친밀성과 소속감, 조화와 단결, 자발적 참여 및 의사 표현, 동일시와 공과의 공유, 자율성과 공공의식, 그리고 권위적·배타적 집단주의의 6개 요인에 각각 4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 사회정체성과 남녀간 집합적 경쟁전략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Mummendey(1996 등)의 문항을 참조하여 집합적 경쟁전략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취업기회의 동등성, 동등 임금의 기회, 공무원 여성 할당제 등의 실제 사회제도·정책에서 내집단(여성)에 이로운 방향으로의 변화 시도 및 시도 의도를 측정하는 9문항과 자녀양육의 책임, 가정 유지 등에 대한 상대적인 책임 혹은 남성에 비교한 여성의 특성 등의 사회비교에 근거하여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정도를 측정한다고 보이는 8문항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는 0(전혀그렇지 않다) ~ 3(보통) ~ 6(매우 그렇다) 혹은 -3(매우 반대한다) ~ 0

(보통) ~ +3(매우 찬성한다) 중 해당하는 7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 후에는 연령(만), 성별, 소속 지역, 학교, 학과와 같은 인구통계적 내용을 질문하였다.

## 자료의 분석

먼저 전체 조사 자료를 문항선정을 위한 표집과 교차타당화를 위한 표집으로 무작위로 나누었는데, 이 때 문항의 선정 과정에 더 비중을 두어서 표집을 3 : 2의 비율로 구성하였다. 여성 성별 사회정체성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고 선정된 문항을 기초로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여 각 하위 요인의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여성 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데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 선정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표집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구성개념의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집합적 경쟁 전략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해서도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고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문항과 집합적 경쟁전략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단순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은 SAS 6.12를 이용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은 LISREL-pc용 8.03판을 이용하였다.

## 결 과

### 성별 사회정체성의 탐색적 요인분석

여성 사회정체성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자료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253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 모형은 공통요인 모형이었고, 기초 구조의 추출 방법은 주축분해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공통분의 시초값은 중다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로 추정하였다. 요인의 해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인구조의 회전에는 직교회전(Varimax) 방법을 이용하였다.

기초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고유치가 1.00이 넘는 요인의 수는 총 6개였으나 누적분산 비율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중 요인부하량이 .35이하인 문항이나 두 요인 이상에 모두 부하된 문항을 제외하고, 해석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총 21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59.96%를 설명한다. 각 문항들과 요인에 해당하는 요인 부하량 및 공통분과 고유치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제 1요인은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은 외집단(남성)에 비교하여 혹은 내집단(여성)에 대한 애착 및 내집단 성원들과의 연대감, 일체감 등의 범주 동일시를 나타낸다. 따라서 여성범주동일시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Tajfel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 중 인지적 측면에 해당한다. 또한 Ellemers 등(1999)의 자기-범주화와 일관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녀의 자기-범주화 문항 중에는 '나의 집단은 내가 누구인지를 반영하는데 중요하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만, 본 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문항들은 다음 요인인 '집단 자존심'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alpha$ )는 .78이다.

제 2요인의 문항들은 전체적으로 내집단에 대한 긍지, 내집단에 대한 의미 부여, 중요성 지각 등의 소속감에 관련된 정적인 가치를 보여주며, Tajfel의 가치차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Ellemers 등(1999)에 따라 '집단 자존심'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alpha$ )는 .77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자기를 여성으로 범주화하는 문항이 자존심 요인에 포함된다. 즉, 우리 문화에서 자신을 여성답다고 느끼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집단에 대해 자존심을 느끼는 정도와 동일한 차원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여성 성별정체감의 독특한 측면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제 3요인은 대체로 내집단의 성원이라는 데 대한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문항들이 포함되었고, 집단에 대한 부적 의미 부여에 관련된 문항도 이 요인에 속한다. 따라서 Ellemers (1999)의 연구들에서는 집단에 대한 '정서적 몰입감'으로 명명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체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alpha$ )는 .77이었다. 그런데 Ellemers (1999)의 연구 결과에서 정서적 몰입감에 속했던 문항 중 '나는 내집단의 성원들과 계속 함께 활동하고 싶다'는 문항은 오히려 '여성범주동일시'요인에 속해 있고, 그 밖에 정체성에 대한 부적 측면의 정서들이 한 요인으로 묶여 있는 점이 주목된다.

표 2 여성 사회정체성척도를 구성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분
나는 남성들보다 여성들과 계속 함께 활동하고 싶다	0.720			0.524
나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에 대한 애착이 더 크다	0.702			0.503
나는 여성들을 남성들보다 쉽게 믿는다	0.667			0.452
나와 절친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다	0.662			0.452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여성들과 함께 하고 싶다	0.508			0.261
나는 다른 여성들과 연대감을 지니고 있다	0.410			0.195
나는 다른 여성들과 일체감을 느낀다	0.366			0.186
나는 내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낀다		0.702		0.503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다		0.639		0.433
나는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로 인해 삶의 의미를 더 느끼게 된다		0.631		0.410
나는 내 자신이 여성답다고 생각한다		0.570		0.331
나는 여성임을 스스로 내세운다		0.536		0.293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나에게서 중요하다		0.472		0.237
내가 여성이라는 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반영해준다		0.472		0.270
나는 내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에 화가 난다			0.685	0.501
나는 내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싫다			0.667	0.480
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치가 높지 못하다고 느낀다			0.593	0.355
나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0.575	0.344
나는 여성이 아니었다면 행복했을 것이다			0.558	0.347
나는 종종 나 자신이 여성들 중에서 쓸모없는 구성원이라고 느낀다			0.488	0.248
나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0.463	0.242
설명변량: 59.96%	고유치:	2.601	2.522	2.445

**성별 사회정체성 측정치들을 사용한 확인적 요인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응답자 198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하여 교차타당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공변량행렬 자료로 GL(Generalized Least Squares Method)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여러 문항들로 척도 개발을 할 때 문항들간 다변량 정규분포를 강하게 가정할 수 없을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또한 요인간 상관을 가정하지 않은 가설 모형을 검증하였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부합지수 중 기초부합치(GFI: Goodness of Fit Index)는 .94, 조정부합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는 .92로 모두 .90 이상이었고, 표준부합치(NFI: Normed Fit

Index)는 .87, 비교부합치(CFI: Comparative Fit Index)는 .87로 .90에 가까운 지수를 보여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세 요인 모형이 실제 자료와 대체로 잘 부합됨을 알 수 있다.

**성별 사회정체성과 한국 공동체의식검사와의 상관**

세 요인모형으로 설명되는 여성 사회정체성과 관련된 개념을 측정한다고 생각되는 한국 공동체의식 검사(정진경, 1999)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 공동체의식검사의 6개 요인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순서대로, .81, .59, .71, .72, .64, .57로서 .60에 근접하거나 상회하는 값을 보였다. 여성 사

회정체성과의 상관을 볼 때 한국 공동체의식 검사의 친밀성과 소속감(요인 1), 동일시와 공과의 공유(요인 4) 및 권위적·배타적 집단주의(요인 6) 요인에서 각각 .23, .18, .19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조화와 단결 요인'은 여성 사회정체성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화와 단결'이라는 요인의 의미에서 검토된 바와는 달리, 예를 들면 '그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행동은 조심한다'와 같은 문항의 내용으로 볼 때 여성 전체 범주에 적용하기 힘든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 사회정체성의 세 요인들 중 선행 연구에서 인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성범주동일시 요인에서는 한국 공동체의식검사의 각 요인들과 순서대로 .51, .32, .21, .39, .18, .25의 유의한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여성 사회정체성과 한국 공동체의식검사는 .13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그러므로 여성 사회정체성의 한 요인만이 한국 공동체의식검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 남녀간 집합적 경쟁전략

여성 사회정체성의 각 요인과 집합적 경쟁전략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집합적 경쟁전략에 해당하는 17문항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기초 요인분석 결과에서 고유치가 1.00을 넘는 요인은 두 개였고, 전체 변량 94%를 설명하였다. 두 요인은 각각 성별 관련 경쟁행동을 나타내는 9개 문항과 여성을 남성과 심리적으로 사회 비교하려는 의식에 관련된 8개 문항으로 구분되었다. 이를 각각 '경쟁행동' 그리고 '비교의식'으로 지칭하였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3.04와 2.50이었다. 또한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alpha$ )는 각각 .75와 .74였다.

다음으로 집합적 경쟁전략의 각 요인들과 여성 사회정체성과의 상관을 구하기 전에 역전시킬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집합적 경쟁 전략에 해당하는 전체 문항들과 개별 문항간 상관을 구했다. 그 결과 비교의식에 해당하는 5개 문항이 부적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므로 이를 역전하였다. 따라서 '경쟁행동' 요인에서 높은 점수는, 예를 들면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와 같은 제도·정책에서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남녀간 경쟁을 꾀하는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비교의식' 요인에서 높은 점수는, 예를 들면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면에서 아들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역전)'와 같은 문항에서 더 낮은 점수를,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책임자를 정할 때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믿음이 간다'와 같은 문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교의식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이 남자와 사회비교에서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심리적인 비교를 더 함을 의미한다.

### 여성의 사회정체성과 남녀간 집합적 경쟁전략의 관계

먼저 여성 사회정체성의 요인들과 남녀간 집합적 경쟁전략의 요인들이 별개의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성 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들과 집합적 경쟁전략 문항들을 함께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했다. 여성 사회정체성의 요인분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5개였는데 경쟁행동, 여성범주동일시, 부정적 정체성, 집단 자존심, 비교의식

표 3. 여성 사회정체성의 세 요인과 집합적 경쟁전략의 단순상관

	여성범주 동일시	집단 자존심	부정적 정체성	여성사회정체성 전체
경쟁행동	0.26***	0.09	-0.15*	0.01
비교의식	0.06	0.07	0.40***	0.38***
전 체	0.24***	0.13***	0.22***	0.32***

\* + p<.10, \* p<.05, \*\* p<.01, \*\*\* p<.001 이하 표에서도 동일함

의 순서로 각각 고유치가 3.39, 2.87, 2.72, 2.65, 2.27이었다. 5개의 요인으로 전체변량의 91%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요인들은 심리적으로 서로 분리되는 독립된 요인들로 볼 수 있겠다.

집합적 경쟁전략의 각 요인과 여성 사회정체성 요인간에 상관을 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여성 사회정체성은 집합적 경쟁전략 전체와 .32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사회정체성 수준이 높을수록 집합적으로 남성과 경쟁하려는 현상을 나타냈다. 또한 Ellemers(1999)의 연구와 일관되게 여성 사회정체성의 세 요인 중에서 집합적 경쟁전략의 두 요인과 모두 상관되는 요인은 부정적 정체성 요인이었다. 부정적 정체성 요인과 경쟁행동 요인이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데 이는 여성 사회정체성 전체 점수에서 부정적 정체성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여성인데 대해 부정적 정체성을 지닐수록 더 성평등 혹은 우월을 위한 경쟁행동을 지님을 의미한다.

또한 세 요인들을 함께 예측치로 사용했을 때 집합적 경쟁전략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합적 경쟁전략의 각 요인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동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합적 경쟁전략은 여성 사회정체성에 포함

된 세 요인들에 의해서 전체 설명변량의 12%가 설명된다. 경쟁행동 요인은 여성 사회정체성 중 '여성범주동일시'에 의해 27%로서 가장 많이 설명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여자로서, 여성에 대한 소속감을 지니는 등 범주 동일시가 높고, 또한 여성이라는 데 대한 부정적 정체성을 더 지닐수록 더욱 남녀간 집합적 경쟁 행동을 하거나 경쟁 행동 의도를 지님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은 여성 사회정체성의 세 요인들에 의해서 전체 설명변량의 17%를 설명하는데, 부정적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집단자존심, 여성범주동일시의 순서였다. 그 의미로 볼 때 자신이 여자라는 데 대한 부정적 정체성이 낮을수록, 즉 여자라는 데 대해서 화가 덜 나고, 덜 싫을수록 남성에 대해서 집합적 비교의식을 더 지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자신이 여자임에 대해서 부정적 정체성이 덜 할수록 남성보다 여성을 책임자로 더 믿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덜 생각하며, 가정을 유지하는 데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 더 반대하였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여



성이라는 데 대해서 지니는 인지, 감정 및 태도를 알아내는 여성 사회정체성의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이 측정치와 남녀간 집합적 경쟁전략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3요인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의 신뢰도는 각 요인별로 .77~.78 수준이었고, 사전 연구들과 일관되는 요인구조가 추출되었다. 즉 Tajfel(1979)과 Ellemers(1999)의 요인해와 비교해 볼 때 소속에 대한 지식 및 자기범주화에 상응하는 '여성범주동일시' 요인, 그리고 소속의 가치 혹은 집단 자존심에 일치하는 '집단자존심' 요인 및 집단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부정적 정체성'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여성범주동일시'와 '부정적 정체성' 요인은 각각 사전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추출되는 인지와 정서 요인에 해당되는 요인들이다. 이 밖에도 '집단자존심' 요인은 평가 요인에 해당하여 대체로 사전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성별을 대상으로 여성정체성을 연구한 Cameron과 Lalonde(2001)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그들의 연구에서는 내집단 연대감과 인지적 중심성이 별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내집단 정서 요인도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여성범주동일시' 요인이 그 연구에서 추출된 내집단 연대감과 인지적 중심성을 모두 포괄한다고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각 요인의 문항 내용을 살펴볼 때 '여성범주동일시' 요인은

내집단 연대감과 가깝고, 인지적 중심성 측면은 오히려 '집단자존심'의 측면에 더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신이 여성이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와 같은 문항은 본 연구에서 '집단 자존심' 요인에 해당하는 '나는 여성이라는 사실로 인해 삶의 의미를 더 느낀다'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중요하다' 혹은 '내가 여성이라는 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반영해 준다'와 같은 문항들에 상응하는 의미를 지닌다. 즉, 한국 문화권에서는 특별히 성별에 관련하여 이러한 범주 인식의 측면이 집단 자존심을 나타내는 요인에 속함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정체성에 대해서 다요인보다는 1요인을 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Brown(1986) 등의 연구 결과에서 일요인의 해가 언급되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 결과들과 차별되는 면이 있다. 또한 Karasawa(1991)의 연구에서도 인지요인과 정서요인이 구분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지요인과 정서요인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도 다르다.

여성이 남성과 집합적 경쟁전략을 취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 사회정체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성이 남성에 대해 지니는 성 관련 집합적 경쟁전략들 가운데 남녀평등을 위한 서명, 대회에 참여, 혹은 정책에 집합적으로 찬성하거나 주장하

표 4. 여성 사회정체성의 세 요인들에 의한 집합적 경쟁전략의 동시회귀분석

	예측변인의 $\beta$			R <sup>2</sup>
	여성범주 동일시	집단자존심	부정적 정체성	
경쟁행동	.27***	.04	-.07*	.09***
비교의식	.05	.12+	.25***	.17***
전 체	.17***	.08*	.08***	.12***

는 등의 행동 및 행동의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성별정체성의 차원들 중에서도 여성범주 동일시 요인이었고, 이에 부정적 정체성이 부가될 필요가 있었다. 반면 아들의 중요성, 아버지에 비교한 어머니의 중요성, 혹은 남성에 비교한 여성의 우월 의식을 인식하는 등의 성별 비교의식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부정적 정체성 요인이었다.

집합적 경쟁전략을 두 차원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경쟁행동과 비교의식에 모두 상관되는 여성 사회정체성의 요인은 부정적 정체성 요인이었다. 결과는 Hinkle 등(1989)의 연구에서 정서만이 차별과 관련된 결과나 Ellemers(1999)의 연구에서 집단몰입이 의집단 차별화와 상관된 결과와 일관된다. 그러나 부정적 정체성은 경쟁행동과 비교의식에서 설명하는 방향이 상반되었다. 즉 자신이 여자라는데 대해서 부정적 정체성이 높을수록 더욱 경쟁행동을 보이고, 반면 부정적 정체성이 낮을수록 남녀간 비교의식이 높았다. 이 결과는 실제로 비교의식만을 지니고 있는 경우와 경쟁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여성 정체성 가운데 특히 부정적 정체성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함을 보이므로 흥미롭다.

정서적 측면의 설명이 우월한 사실로 볼 때 이론적인 측면에서 Turner(1984; 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가 집단 정체성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점과 대조되고, 자기범주화이론에 비교하여 사회정체성이론의 더 나은 예측력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용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남녀간 집합적 경쟁전략의 두 요인들을 모두 설명하는 요인이 부정적 정체성이었으므로 성 평등을 위한 여성운동에서 경쟁행동과 비교의식에 두루 관련되는 부정적 정체성

요인과 그 방향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의 제한점 및 장래 연구를 위한 제안

장래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먼저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정체성이론을 도입하여 여성 사회정체성에 따른 사고 및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토대가 되는 첫 연구이다.

본 연구는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여성 중에서도 여대생에 한정되었다. 장래 연구에서는 여성의 범위를 넓혀서 성인이나 청소년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남성 사회정체성도 연구하여 여성의 사회정체성과 비교 검토할 필요도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여성 정체성과 비교의식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체성이 선행되어 비교의식을 지닌다고 보고 비교의식을 준거변인으로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비교의식을 더 지닐수록 부정적 정체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 장차 실험 연구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정체성과 성별 사회비교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

또한 장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더 넓혀 남성과 여성을 지위의 차이가 있는 집단간 관계로 설정하고, 지위, 안정성, 침투가능성, 합법성, 특출성과 같은 사회구조적 변인의 지각이 성별사회정체성을 매개하여 집합적 경쟁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정체성이 사회구조적 변인과 집합적 행동 전략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사회 정체성을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행동추진지와 별개로 사회정체성을 보조적으로 기술하거나(Ellemers, Doosje, Van Knippenberg & Willke, 1992; Mummendey &

Otten, 1996; Ellemers, Willke, Van Knippenberg, 1993 등), 선행 독립변인으로 조작하거나(Doosje, Ellemers & Spears, 1995, 연구 2; Ellemers, spears, Doosje, 1997, 연구1, 2 등), 혹은 조작하지 않고 반분하여 독립변인으로 삼아서 (Spears, Doosje & Ellemers, 1997; Jetten et al., 2000 등)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크게 조절변인으로 다루는 연구들과 매개변인으로 다루는 연구들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래 연구에서는 성별사회정체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혹은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봄으로써 두 관점들의 상대적 타당성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집합적 경쟁전략은 주로 저지위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고지위에 속하는 성원들도 특정한 경우, 예를 들면 현재 지위관계가 불안정적이고 침투가능한 때에는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체성 관리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일관되게 집단의 상대적 규모, 지위 및 침투가능성을 조작하여 집단에 대한 동일시와 집단 멤버십에 가치를 두는 정도를 알아본 Ellemers, Doosje, Van Knippenberg 및 Wilke (1992)의 연구에서는 집단 경계가 침투가능할 때 고지위 소수 성원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내집단 정체성을 보였다. 그러나 고지위 성원에 있어서 동일시 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른 구체적인 정체성 관리 전략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에 관해서도 장차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지위 집단과 고지위 집단의 정체성 관리전략의 사용을 차별화하여 고지위 집단의 정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더 깊이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부정적

정체성의 방향과 그 의미를 고려할 때 경쟁행동과 비교의식을 고지위인 남성과 저지위인 여성이 차별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저지위인 여성은 비교의식과 경쟁행동을 둘 다 사용하지만, 자신이 여성이라는 데 대해서 부정적 정체성을 높게 지니면 경쟁 행동을 더 하고, 부정적 정체성을 덜 지니면 비교의식을 더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고지위인 남성은 평등이나 우월을 주장하는 성별 집단간 경쟁 행동을 하기 보다는 비교의식을 지니고, 지위가 더 높다고 지각할수록 비교의식을 더 높게 지닐 수 있다. 장래 연구에서는 남성의 성별정체성을 측정하고 여성의 성별정체성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가설들도 검증할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 김득란(1992). 양성적 남녀의 성역할 반응양식과 관련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김영희(1994). 성역할정체감과 학습된 무기력. 정민사.
- 김혜숙(1994). 한국 집단자아존중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103-116.
- 방희정(1996). 성 고정관념: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실제. 김태련 외 5인, 여성심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70-211.
- 임용자(1994). 성역할 관련요인이 여대생의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진경(1990). 한국성역할검사(KSRI). 한국심리학

- 회지, 5, 82-91.
- 정진경(1999). 한국 공동체의식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19-30.
- 한덕웅(1990). 소집단 행동 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24-58.
- 한덕웅(1995). 집단 행동 이론의 비판적 개관(I): 집단내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2), 1-27.
- 한덕웅(1995). 집단 행동 이론의 비판적 개관(II): 집단간 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1), 39-84.
- 한덕웅(2001, 인쇄중) 집단심리이론.
- Ashmore, R. D., Del Boca, F. K., & Wohlers, A. J. (1986). Gender stereotypes. In R.D. Ashmore & F. K. Del Boca(Eds.), *The social psychology of female-male relations*. Orlando, FL: Academic Press.
- Baron, R. S., Kerr, N. & Miller, N.(1992). *Group process, group decision, group action*.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lanz, M., Mummendey A., & Otten, S.(1995). Perceptions of relative group size and group status: Effects on intergroup discrimination in negative evalu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 231-247.
- Blanz, M., Mummendey, A., Mielke, R., & Klink, A.(1998). Responding to negative social identity: a taxonomy of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697-729.
- Bond, M. H., & Hewstone M.(1988).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perception of intergroup relations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2*, 153-170.
- Bourhis, R. Y.(1994). Power, gender, and intergroup discrimination: Some minimal group experiments. In M. P. Zanna & J. M. Olson(Eds.), *The psychology of prejudice: The Ontario Symposium*(vol. 7, pp. 171-20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ranscombe N. R. & Wann, D. L.(1994). Collective self-esteem consequences of outgroup derogation when a valued social identity is on trial.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 641-657.
- Brewer, M. B., & Brown, R. J(1998). Intergroup relation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Gilbert, D. T. Fiske, S. T. & Lindzey G.(Eds), 2, 554-594. McGraw-Hill.
- Brewer, M. B. & Miller, N.(1996). *Intergroup relation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Cameron, R. E., & Lalonde, R. N.(2001). Social identification and gender-related ideology in women and me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59-77.

- Crocker, J., & Luhtanen, R.(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60-67.
- Doosje, B., Ellemers, N., & Spears, R.(1995). Perceived intragroup variability as a function of group status and iden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410-436.
- Ellemers, N. Doosje, B., Van Knippenberg, A., & Wilke, H.(1992). Status protection in high status minority 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123-140.
- Ellemers, N.(1993). The influence of socio-structural variables on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In W, Stoebe, & M. Hewstone(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Vol. 4, pp.27-57). Chichester: Wiley.
- Ellemers, N., & Bos A. E. R.(1998). Social identity, relative deprivation, and coping with the threat of position loss: a Field study among native shopkeepers in Amsterda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8(21), 1987-2006.
- Ellemers, N., Kortekaas, P., & Ouwerkerk, J. W.(1999). Self-categorization, commitment to the group and group self-esteem and related but distinct aspects of social ident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371-389.
- Ellemers, N., Spears, R., & Doosje, B.(1997). Sticking together or falling apart: In-group identification as a psychological determinant of group commitment versus individual mo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3), 617-626.
- Ellemers, N., Wilke, H., & van Knippenberg, A.(1993). Effects of the legitimacy of low group or individual status on individual and collective statusenhancement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5), 766-778.
- Forsyth, D. R.(1999). *Group dynamics*.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Grant, P. R., & Brown, R.(1995). From ethnocentrism to collective protest: Responses to relative deprivation and threats to social identit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8(3), 195-211.
- Hendrick, C.(1987). *Group processe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Hinkle, S. W., Taylor, L. A., Fox-Cardamone, D. L., & Cook, S.(1989). Intragroup identification and intergroup differentiation. L. A. multicomponent approach.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305-317.
- Hinkle, S., Taylor, L. A., Fox-Cardamone, L., & Ely, P. G.(1998). Social identity and aspects of social creativity: Shifting to new dimensions of intergroup comparison(pp.166-179). In S. Worchel, J. F. Morales, D. Páex, & J. C. Deschamps,

- Social Ident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Sage Publications.
- Jackson, J. W., & Smith, E. R.(1999). Conceptualizing social identity: A new framework and evidence for the impact of different dimension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1), 120-145.
- Jackson, L. A., Sullivan, L. A., Harnish, R., & Hodge, C. N.(1996). Achieving positive social identity: Social mobility, social creativity, and permeability of group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241-254.
- Kaplan, A. G., & Sedny, M. A.(1980). *Psychology and Sex Roles: An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 Karasawa, M.(1991). Toward and assessment of social identity: The structure of group identification and its effects on ingroup evalu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293-307.
- Lalonde, R. N., & Silverman, R. A.(1994). Behavioral preferences in response to social injustice: The effects of group permeability and social identity sa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78-85.
- Levin, J. M., & Moreland R. L.(1998). Small group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Gilbert, D. T. Fiske, S. T. & Lindzey G.(Eds), 2, 415-469. McGraw-Hill.
- Luhtanen, R., & Crocker, J.(1992).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evaluations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302-318.
- Mummendey, A., Kessler, T., Klink, A., & Mielke, R.(1999b). Strategies to cope with negative social identity: Predictions by social identity theory and relative depriv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2), 229-245.
- Mummendey, A., Klink, A., Mielke, R., Wenzel, M., & Blanz, M.(1999a). Socio-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tergroup relations and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Results from a field study in East German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259-285.
- Mummendey, A., Mielke, R., Wenzel, M., & Kanning, U. P.(1996). Social identity of East Germans: The process of unific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s a challenge to cope with 'negative social identity'. In G. Breakwell, & Breakwell, & E. Lyons(Eds), *Changing European identities: Social psychological analyses of social change*(pp. 405-428). Oxford: Butterworth-Heinemann.
- Platow, M. J., McClintock, C. G., & Liebrand, W. B. G.(1990). Predicting intergroup fairness and ingroup bias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 221-239.

- Reynolds, K. J., Turner, J. C., & Haslam, S. A.(2000). When are we better than them and they worse than us? a closer look at social discrimination in positive and negative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64-80.
- Ruggiero, K. M., & Taylor, D. M.(1995). Coping with discrimination: How disadvantaged group members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826-838.
- Sachdev, I. & Bourhis, R. Y.(1987). Status differentials and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7, 277-293.
- Smith, H. J., Spears, R., & Oyen, M.(1994). "People like us:" The influence of personal deprivation and group membership salience on justice evalu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277-299.
- Spears, R., Dossje, B., & Ellemers, N.(1997). Self-stereotyping in the face of threats to group status and distinctiveness: The role of group identif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5), 538-553.
- Tajfel, H., & Turner, J. C.(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 33-53). Monterey, CA: Brooks-Cole.
- Taylor, D. M., & Moghaddam, F. M.(1987). *Theories of intergroup relations: International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Praeger.
- Worchel, S. & Austin, W. G.(1986).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cago: Nelson-Hall Publishers.
- Worchel, S., Wood, W. & Simpson, J. A.(1992). *Group process and Productivity*.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ocial identity and collective competition strategy

Keum-Mi Kim · Doug-Woong Hahn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tried to identify 1) the factor structure of women's social identity 2) the factor structure of the collective competition strategy 3)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ocial identity and collective competition strategy. A sample of 451 women completed a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main findings. First, three-factor model was the best-fitting model in explaining women's social identity; women category identification, group self-esteem, and negative identity. Second, in collective competition strategy, two-factor model was the best-fitting model; competition behavior and intergroup comparison.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ocial identity and collective competition strategy, along with the increase of women's social identity, participants' collective competition strategy increased. The results revealed in the present study were compared with the previous studies. Finally, the limitat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